

북한개발소식

2023 MAR

03

통권 209호

이달의 주제

2023 북한 경제와 선교적 제언

탈북민 수기

이끄심-3화

북한뉴스

北 개성에 하루 수십명씩 아사자...
양곡 유통 통제 영향으로 추정

서평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3 북한 경제와 선교적 제언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3 MAR

이달의 주제 :

2023 북한 경제와 선교적 제언

권두칼럼	01	2023 북한 경제와 선교적 제언
칼럼_1	08	양운철 _ 북한의 경제기조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칼럼_2	13	임을출 _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칼럼_3	18	최 설 _ 코로나 봉쇄, 그리고 북한경제 내구력 평가 -텃밭 하우스농사 중심으로-
탈북민 수기	24	김서윤 _ 이끄심-3화
북한뉴스	32	北 개성에 하루 수십명씩 아사자... 양곡 유통 통제 영향으로 추정
서평	36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의 경제난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08



13



18



24



대북제재 강화 이후 최근까지 북한 경제는 악화일로인 듯 보인다. 특히 작년의 경우 코로나 발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봉쇄와 통제로 인해 경제 부분의 성과가 더욱 미진했던 모양이다. 그래서일까? 2022년 말 있었던 북한의 제 8기 제 6차 당 전원회의의 결과 발표에서 북한은 핵무장 강화 등 정치·군사적으로는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경제 부분에서는 농업 부분에 대한 강조와 살림집 건설 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성과나 목표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무언가 내세울만한 성과 제시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2023년 들어서도 북한의 좋지 않은 경제 사정에 대한 우려스러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대북소식통을 인용하여 개성시에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 고위간부

를 해당 지역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¹ 북한 전문 미디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는 근래에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²

그간 대북 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북한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지만, 이제 코로나 봉쇄도 종식되어가고 외부와의 대외 교역도 재개되고 있으니 회복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정책 변화 없이 자력갱생의 구호와 정면돌파전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 북한 경제가 난관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 전망이 쉽지 않다. 경제 문제는 국가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인 만큼 북한의

1 "北 개성에 하루 수십명씩 아사자...김정은, 두차례 간부 파견", 연합뉴스, 2023년 02월 0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6065400504>>

2 일 언론인 “북 전역서 아사자 발생”...식량상황 ‘심각’, 자유아시아 방송 (RFA), 2023년 02월 10일,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humanitarian-02102023102152.html>

경제 상황과 예상 경로를 통해 앞으로의 북한의 행보와 변화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살펴 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 선교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경제 침체와 엇갈리는 전망

김정은의 집권 초기 경제 정책은 일각에서는 ‘계몽군주’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전향적이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농장책임관리제 등을 통해 기업과 농장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기업과 농장은 이제 국가에 납부해야 할 액수 외에는 자신들의 복지나 설비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기업들은 더 많은 벌이를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났다. 농장에서도 더 많은 벌이를 위한 시설 투자를 통해 평양 등 대도시 인근 농장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활용 등 발전된 농법의 도입도 이루어졌다. 장마당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직접 장마당을 관리하고 장세를 부과하는 등 장마당을 양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대외 수출 분야에서도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어 단순 지하자원 외에 중국으로부터 일감과 재료를 받아 가공하여 납품하는 임가공 산업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 정책 움직임은 가시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흐름은 대북 제재 강화 이후 단절되었다. 2017년 이후 강화된 대북

제재로 석탄, 철광석, 수산물, 의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과 자본재, 원유 등의 수입이 제한되면서 수입에도 제약이 걸렸다. 이로 인해 북한의 모든 생산 활동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기업소와 농장 모두 국가에서 정한 총당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북한의 특성상 공식부문의 생산 부진은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참여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의 위축으로도 연결된다. 또한 해외수입 중단 및 국내 생산 악화로 주요 물품의 국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물가 상승 및 실질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와 국내수요를 더욱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³ 게다가 제재로 인해 외화 벌이 창구가 제한되면서 대외 무역 간 외화 고갈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북한 당국은 제재 초기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이 난관을 타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러한 기대는 무너졌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생산도, 물자도, 외화도 부족한 북한이 장마당의 활성화 등 김정은 초기의 경제 정책을 이어갈 수 없었고, 결국 북한은 국내의 제한된 자원을 중앙에서 통제하여 매우 필수적인 부분 위주로만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3 조태형 외 (2022),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 2022-13호 (2022.09.05.)

북한은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이라는 구호 속에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경제 관리를 중앙집권화 하면서 국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는 산업현장에서는 CNC화를 통해 수입이 어려운 기계나 장비, 설비를 자체 제작하고 원재료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등을 통해 생산 활동을 이어나가는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살림집 건설 등 국내 자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나 농업과 같은 생존을 위한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코로나 봉쇄로 인한 대외 무역 중단과 함께 외화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여 외화 소모를 억제하고 시중의 달러를 더 많이 흡수했다. 장마당에 대해서도 자율보다는 통제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은 장마당 운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2여 년간 장제도 2배 정도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또한 개인들이 서비스 하던 업종들 중 일부를 국영기업에서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었다.⁵ 최근에는 개인의 양곡 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양곡판매소를 통해서만 곡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급격한 곡물가 인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그만큼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각종 서비스의 국영

4 “북한 공식시장 대형화 진행…총 414개로 여의도 면적 3분의 2”, 연합뉴스, 2022년 11월 2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3054351504>>

5 “김정일보다 개혁 후퇴”... 北 장마당 금지, 이발관·과외도 통제, 조선닷컴, 2021년 03월 04일,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3/04/OW522RGA4FAS5B-FJRLHMBASFYA/>

화와 개인 양곡 거래 금지 및 양곡판매소에서 식량공급카드를 이용해 식량을 거래하도록 한 조치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 통제 일변도의 경제 시스템으로의 회귀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명령식 계획경제체제로의 유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⁶ 실제로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아사자 발생 보도 등 북한의 식량 부족현상에 대해 “식량의 절대량 부족보다는 새로운 양곡 유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배 문제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⁷ 국가 주도의 양곡 유통 통제가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북한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해있고 이를 당국이 국가 통제의 강화로 대응하고자 한다는 점은 명백한 듯하다. 다만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한 학계의 전망을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정리했다.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2023년 북한경제는 이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 점점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미 북한의 무역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경제교

6 [글로벌포커스] 위험 항로로 돌진하는 북한 경제, 매일경제, 2021년 02월 17일, <mk.co.kr/news/contributors/9752182>

7 통일부, 北식량난 “절대량 부족보다 신 유통정책 분배문제 때문”, 노컷뉴스, 2023년 02월 16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896648>>

류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2023년 북한경제는 이전보다 더욱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2023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순조롭게 늘어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늘어난다고 해도, 이를 계기로 그간 억눌려 왔던 환율과 물가 등 각종 거시변수들이 부정적으로 급변하는 혼란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⁸

예상되는 북한 당국의 대응과 그 한계

북한의 중앙 통제적 경제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간 쌓여온 주민들의 경제적 역량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북한의 경제난은 과거 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는 치달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의 드라마틱한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경제난 해결방안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의 인정 및 제재 해제인데, 이는 근 시일에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옵션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기는 했지만 한정된 외화 사정과 억눌려온 위안화 및 달러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적극적인 교역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8 이석 (2023), “북한의 중장기 경제 추세와 2022~23년 북한경제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1월호, 3-37.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다른 방향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활용하고 경제난을 극복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본고는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상황 타개 노력에 힘쓰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한다.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재건 사업 참여이다. 러우 전쟁이 현 상태에서 큰 변화 없이 휴전에 이르면 러시아 점령지인 돈바스와 루한스크 지역에 괴뢰정부가 들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이들의 경우 유엔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유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의 표르트 일리체프 국장이 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⁹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통한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닉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 연구원은 "북한에 있어 푸틴 대통령과 밀착하는 것은 제재 회피와 첨단 기술 협력의 문을 열어준다"고 분석했다.¹⁰

관광 산업의 재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서부터 마식령 스키장 건설 및 현재도 건설 중인 원산 갈마 관광지구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금강산 관광지에 대해서도 남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체 개

9 러시아 "北 노동자 '돈바스 재건' 투입, 대북제재 위반 아냐", SPN 서울평양뉴스, 2022년 08월 20일,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19>>

10 북한, 러와 밀착해 제재 피하고 기술 협력하는 절호의 기회 얻어-WSJ, 뉴스1, 2022년 08월 29일, <<https://www.news1.kr/articles/?4786503>>

발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며 최근에도 계속해서 시설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¹ 실제로 북한의 관광산업은 제재 이후 더욱 활성화 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19년도에는 북한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 규모가 역대 최대인 26~30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¹² 비록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이러한 관광 흐름은 중단되었지만 주변국의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면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시금 관광산업 활성화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당국이 필요로 하는 외화 획득과 핵개발에 필요한 자원 및 기술 확보에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민생 경제 차원에서는 민심을 달래고 국가 경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자원 투입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분배의 우선순위는 정권을 떠받치는 주요 계층이나 군사력 증강 관련 산업이 먼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올해 “기하급수적 핵탄 증대”를 선언했다. 무기 생산과 유지보수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당국이 민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살림집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제재 국면에 대응하기 적합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살림집이 주로 포상의 형태로 주민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핵심 지

11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진행...통일부 "매우 유감", SBS, 2022년 10월 18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36573>

12 이정균 (2020), “중국의 대북관광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20-12 (2020.12.28.)

지층의 충성심 고취와 선전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당국의 역점사업인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경우 주요 수혜자는 결국 평양시에 거주하는 당국의 핵심 지지층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일반 서민과 엘리트층을 구분시켜 지도자에 대항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협력을 저해시키는 일종의 분할 통치 전략 (Divide and Rule)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¹³는 ‘북한에 대북제재가 가해질수록 북한 정권은 선출인단, 즉 정권의 필수 지지층에 경제적 자원 배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권의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지역별 야간 조도의 차이를 이용해 검증을 시도했다.¹⁴ 즉 북한 내에서도 자원 배분이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야간 조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가해질 때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4% 증가하는 것으로 확

13 박영석 외 (2021),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1-16 (2021.12.30.)

14 Henderson, Storeygard, and Weil은 2012년 American Economic Review에 “Measuring economic growth from outer space.”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논문을 통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 야간조도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 GDP 성장률과 야간조도 간 탄력성을 약 0.3 정도로 추정했다. 이들의 연구는 위성 야간조도와 GDP 성장률 간의 관계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성립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경제학계에서 경제성장률과 위성 야간조도 간 관계를 일반화하는 데 기여했다. 박영석 외(2021), p.81 참조.

인되었다. 이 결과를 GDP 단위로 환산하면, 제재 지수가 한 단위 강해질수록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GDP 격차가 약 0.12%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산업 도시, 광산 지역, 중국 접경 지역, 신의주 역시 제재가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야간조도의 강도가 증가했는데 특히 신의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즉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 정권은 국가 자원의 더 많은 비중을 정권 유지의 주요 계층과 관련 산업 지역에 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분배받는다는 의미인 만큼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취약계층의 곤란은 여전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을 위한 우리의 기도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기도가 요청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좋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그나마 투자되는 자원도 상대적으로 정권의 핵심지지층과 군수산업 등에 우선으로 배분된다고 본다면, 그 과정에서 빈부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북한의 식량 수확량이 기존과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아 발생 소식이 들리는 데에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과거 산간 오지로 추방된 기독교인들의 후손들이나 적발되어 처벌받은 기독교인들

의 친척들 중 상당수가 나빠진 성분으로 인해 적대계층으로 취급되어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회의 더 큰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국외적으로는 해외에서의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 확대를 대비한 선교적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향후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나 지역 교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코로나 종식 이후 외화 확보를 위해 노동력 수출 등에 상당히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유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역을 통한 활동에 힘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접촉점이 열릴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의 관광 산업 활성화도 제한적으로나마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접촉점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한국의 정치적 위치나 입장으로 인해 북한과 협력하거나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대체로 한인 선교사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서방세계와의 대립구도를 잡고 있는 북한이기에 북한과의 인도적 접촉이나 교류 협력 사업의 재개 가능성도 당분간 희박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해외 현지 기독교인들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 선교에 대해 더욱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설만한 국가들은 과거 공산국가였거나 반서방적 입장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독교에 대

해서도 심각한 박해가 존재하거나 적어도 종교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그렇지만 그런 박해지역에도 교회가 살아있고, 어떤 면에서는 서구 교회에 비해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픈도 어선교회는 이러한 박해 국가들의 교회를 섬겨오면서 이 교회들이 가진 역량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박해받는 교회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박해받는 지역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Persecuted Church to Persecuted Church (PC to PC)’ 라는 사역 개념으로 발전시켜왔다.

여전히 한국 교회 상당수가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없는 선교 사역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선교에 있어서도 특정 장소나 건물이 아닌 다양한 네트워크

를 적극 활용하는 선교, 그리고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닌 함께 사역하는 선교가 필수화되고 있다. 앞으로의 북한 선교도 한국 교회만의 사명이 아닌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 지역 교회가 북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면 북한 선교에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교회에 좋은 선교 모델을 제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은 올 한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도발과 핵무기 개발에 나설 전망이다.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의지하는 핵무장이 사실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하루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오히려 그 안에서 교훈을 받아 억압과 폭력이 아닌 과오를 돌이키고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

북한의 경제기조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양운철 (세종연구소)

1. 북한경제 침체의 원인

2023년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WFP, Daily NK, RFA 등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 모두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아사자 소식도 들리고 있다. 북한 국영기업들의 경제활동도 대폭 위축되었다. 북한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주요하게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계속 강도가 높아지는 경제제재는 북한경제 전반에 심각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북한이 군수산업을 계속 강화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국방백서를 보면 군대 규모가 한국군이 42만 명 정도인 반면, 북한군은 약 1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북한군의 경우 차이는 있지만 보통 7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년 인력의 장

기간 군사복무는 경제적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매우 큰 국가적 손실이다. 또한 군수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술 확산의 효과가 낮아, 높은 국방비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로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북한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 포기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대신 북한은 폐쇄적으로 주체사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핵 실험 이후, 북한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고립되어 해외 협력도 크게 감소했다. 2010년도 중반 활발한 북중 무역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던 북한경제는 급속히 위축되었다. 북중 무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북한경제는 심각한 외화부족과 기술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협력을 통해 경제지

원을 얻고 무역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주체를 강조하면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자력갱생과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자력갱생 경제정책을 의무적 국가 정책으로 운용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어 중국 상품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주민들은 스스로 경제를 책임지는 자력갱생을 감내해야만 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유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기조로 하는 경제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무시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구소련과 중국도 생존을 위해 개혁정책을 채택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 내지는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으로서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을 통해 민간 부문을 확대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상품 생산을 증대시켜, 국민들에 많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례를 참조해야만 한다.

여섯 번째 이유로는,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작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장마당과 시장이 생성되었고, 국영기업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 유통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경제적 독립과 국가의 통치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염려 등으로 국가는 일정 수준의 시장행위를 허용하면서도 감시와 단속을 지속해왔다.

2. 자력갱생 집착의 모순

내포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



<19년 4월 강원 원산에서 열린 북한 군중집회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의 도래였다. 2020년 이전까지의 북한경제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감내할 만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경제는 산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난 5월부터 약 100일 간 코로나19 대비 비상방역에 전력을 다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김정은 정권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중단한 것은 이해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전 세계는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상당부분 극복했고, 병의 확산에 대한 염려도 크게 감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정책도 좀 더 개방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크게 실망스럽다.

2022년 12월 말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20년의 북한의 경제상황이 부진했고 2023년도 경제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단지 2022년 북한의 건설부문과 문화 부문의 일부 주목할 만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전원회의를 통한 북한의 전향적인 경제정책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시도하기에는 정책수단이 부족하고 긍정적인 정책 결과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북한이 강조하는 국산화는 생산과 소비, 재생산 과정이 자립적으로 연계되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틀 안에서 운용된다. 북한이 그간 강조해 온 자력갱생, 주체화, 자강력 제일주의는 폐쇄적 자립경제 노선처럼 큰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정책을 서술하는 의미가 있지만, 국산화의 기반이 되는 자력갱생은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이 확대된 ‘시장적 관리방법’하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이다. 따라서 민간과의 협력과 보다 많은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국산화는 달성될 수 없다. 실제로 국산화에 성공한 북한의 기업소들은 대부분 평양, 남포, 함흥, 원산 등 주요 도시에 집결되어 있는데, 전력사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우수인력이 포진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산화에 성공한 일부 기업소들이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돈주들의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간과 연계되지 않은 국산화는 성공이 쉽지 않다.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침체된 생산을 활성화시키는데 부분적으로 성

공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외 경제발전 사례가 보여주듯 수입 대체 생산방식이 수출을 동반하지 않고 이념적 논리로 무리한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국제무역의 분업 효과를 얻지 못해 상품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한국이 과거 대내지향적인 경제정책의 성과가 부진하자 곧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선회하여 한국경제의 기적을 달성한 사례가 좋은 교훈이다.

다른 부정적인 면은 자력갱생을 통한 국유기업의 생산력 증대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과거 소련의 경험을 보면, 국유 기업은 소유권의 특성 상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 기업소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나 책임이 거의 부재했다. 다수의 관리자는 능력보다는 정치적 인맥에 따라 임명되었다. 이로 인해 부패가 만연했다. 기업소 책임자들도 그들의 권한 범위를 넘어 다양한 불법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즉, 렌트추구행위¹가 보편화되었다. 현재, 북한 국유기업의 운영도 유사할 것으로 추론된다. 부정적 현상이 유지될수록 국영기업소의 비효율성은 증가하고, 혁신적 사고의 결여와 책임 회피 문제로 인해, 자연독점 형태를 지닌 소수의 특정 기업소를 제외하고는 해외의 상품과 경쟁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현재, 대다수 북한의 국영 기업소는 지구촌의 급속한 경제 변화를 따라가

1 렌트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는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약탈·방어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말한다. (매경 경제용어사전)

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이 진행되어, 종국적으로는 기업소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증가하는 모순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3. 시장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유일한 희망

현 시점에서 북한은 국제 사회와 대화를 통해 경제제재를 회피하고 경제적 지원을 얻기를 희망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 보유는 선대의 꿈을 이룬 최대의 업적이며, 자주권 확보의 확실한 담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북한의 시장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전보다는 위축되어 있지만, 보도처럼 3월에 북중 무역이 재개된다면 북한경제는 지금보다는 활력을 띌 것이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념도 변해야 한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자주와 독립을 강조한다. 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국제무역 이론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북한에 필요한 경제정책은 북한 상품이 해외 경쟁할 수 있는 품질로 완성하는 것이다. 북중 무역이 한창 증가할 때 일부 북한의 기업소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그 원동력은 기업소들이 개인의 자본을 유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상품의 질을 경쟁력을 갖추어 중국시장에서 경쟁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적 시각에서 보면, 상품의 해



(19년 11월 연길시장에서 판매되었던 북한 상품들 (사진=SPN서울평양뉴스))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임 을 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자력갱생 기조의 고수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무력 고도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 기조를 더욱 공고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올 해의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설정해놓고 있다. 지금 김정은 정권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제재, 봉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외부적 영향에도 지속가능한 자립경제구조를 완비하는 것이다. 자력갱생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 잠정적인 전략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북한은 외부 원조나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이나 주민생활 향상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식량난을 자인하면서도 과거와 달리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나 국제기구들에 식량 지원과 관련한 공식적인 요


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군사나 경제건설위주의 일면적인 발전전략이나 남에게 의존하는 발전방식은 설사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이며 미래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체의 힘으로 다방면적인 국력을 건설하여야 국가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코로나19 등장을 계기로 자력갱생 역량 강화에 부쩍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인 2021년 1월에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는 자력갱생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자력갱생 기조는 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고 있는 혹독한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현재

외에서의 경쟁은 생산과 판매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렌트(경제적 지대, economic rent)를 줄이는 부수적 효과도 발생시킨다. 한국 상품이 수출을 통해 부정부패와 같은 많은 내재적 불합리성을 극복한 사례는 큰 교훈이다. 북한도 수출을 통한 국산화를 시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경영방식을 활용하여 수출주도형 생산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동시에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북한에서의 고용 증가, 기술 발전, 외화 확보, 부정부패 감소 등을 달성할 것이다.

반면, 북한에서 개인의 소유권 보장과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시장의 확산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직은 국가가 모든 생산 수단, 인프라, 다양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필품을 제공하는 시장의 확산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만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도 북한은 강력한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지도력은 항상 국가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국내 생

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적어도 상당기간, 북한은 자체적으로 주요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이 주 경제활동 무대인 시장이 아직 북한 경제를 견인하기에는 정치경제적 제약이 너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에서의 시장은 국가의 경제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나 국가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처럼 북한 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할 경우, 시장의 역할은 더욱 확장되고 결국에는 국가경제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인 면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 시장 규모가 계속 확장된다면, 그 때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2023년 북한경제의 전망은 어둡지만, 역사의 교훈은 완전한 절대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여러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해 본다. 



〈자력갱생을 독려하는 북한 선전화(사진=노동신문/뉴스1)〉

의 자력갱생은 이전과는 다른 발전형, 중앙집권형 자력갱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새로운 개념으로, 과거의 각자도생 방식이 아닌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8차 당대회 이후 과거의 것과 구별되는 자력갱생, 보다 개선되고 실효성이 높은 발전형의 자력갱생을 체계화, 제도화해나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이에 근거한 경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단과 봉쇄를 위주로 하는 비상방역조치는 불가피하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북한 주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시장경제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코로나19와 비상방역조치는 이전의 시장화 동력을 억누르고 나라의 모든 경제적 잠재력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동원·이용하여 최대의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환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이런 정책기조의 변화는 전반적인 장마

당 경제에는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장마당에 의존해서 살아온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도 하다.

2. 단기적 민생개선과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 사업 병행 추진

이러한 자력갱생 기조 유지와 더불어 주목할 대목은 북한은 당장의 민생개선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식의주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도 미래세대, 후세대 복지와 번영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전망사업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9월 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수십년을 내다보는 전망적인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설계, 추진되고 있다”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망적인 사업들을 설계작전하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언급해 주목을 끈 바 있다. 노동신문(2022.12.24.)은 현재 경제건설의 특징으로 “오늘보다도 래일을 더 중시하고 만년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단기적인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발전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구상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도시와 농촌의 살림집 건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주택 배정에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줘 출산율을 끌어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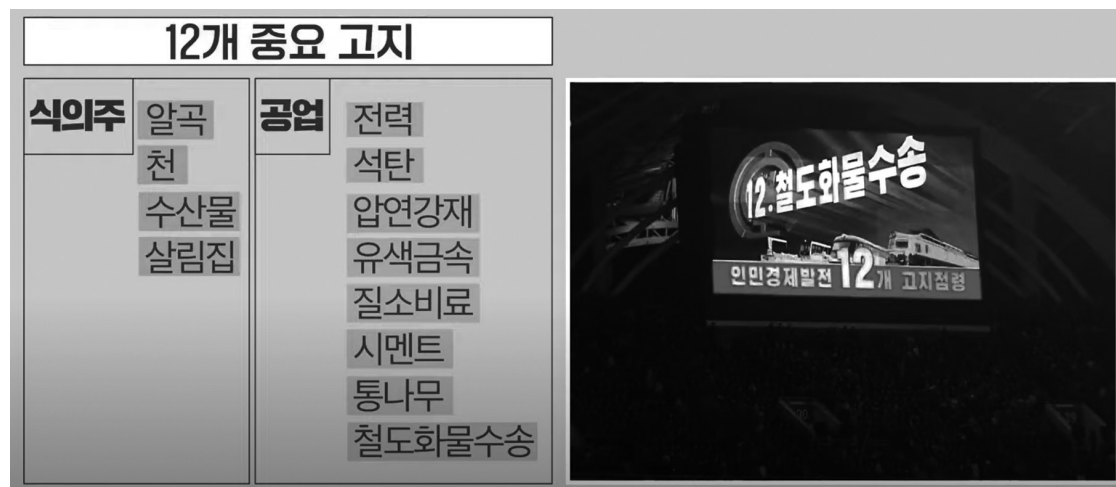
리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살림집법 개정, 육아법 제정과 김정은 딸 김주애 등 장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각별히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가 존립이 걸린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정권은 미래세대를 챙기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애민정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부각시키면서 단기적으로는 인민생활 향상을 보다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에 집중해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연말에 열린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평양 1만세대 살림집 추가 건설, 농촌건설, 관개건설, 간석지 개간, 경공업, 지방공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부분 등이 대표적인 민생개선 분야들이다. 지난해에 이어 밀과 쌀 중심의 알곡 생산 구조 변화, 경공업제품 질 제고를 통해 필수소비품 생산, 기초식품문제 해결 등의 과제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인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살림집 건설성과를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간주한다. 실제 전원회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보면 코로나19 이후 재정, 대외무역, 식량, 산업생산 지표가 모두 하락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투입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

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는 올해”라고 규정하였다.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고, 정비보강계획을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시된 5개년계획, 정비보강계획의 내용과 방대한 과제를 고려해볼 때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북한이 국가방위력 건설에 나서면서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그 어느 때보다 총력 집중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들이다. 가을 수확을 앞둔 지난 9월 최대 곡창 지대인 황해남도에 군수공업 부문에서 새로 만든 농기계 5500대를 지원했던 것과 같은 군수공업 부문에서의 민수 부문 지원현상이 보다 적극적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3. 12개 중요고지 제시 주목

북한의 올해 경제정책 기조, 방향과 세부적인 정책과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2022.12.26.-31.) 보도내용과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김정은 시정연설(2022.9.8.) 내용,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2023.1.17.-18.) 논의 내용 모두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중심과업으로 설정하고, 인민경제 각 부문



〈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분야 12개 주요 고지(좌)와 전원회의의 결정 관철을 위한 평양시 열기대회에서 해당 고지들을 전광판에 비춘 모습(우)(사진=KBS 캡처)〉

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하며 올해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의 중장기전략수행에 이어지게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상당히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지표들을 점령해야 할 방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는 연초부터 1월 내내 경제성과 내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방증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경제성과는 사실상 5개년 계획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9차 당대회가 열리는 2025년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올해 성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5개년계획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important goals) 점령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2

개 중요고지 점령은 5개년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규정해놓고 있다.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민생활의 개선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12개 중요고지를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이 밝힌 12대 고지는 △알곡(grain) △전력 △석탄 △압연강재(rolled steel; 조강, 강판, 강관) △유색금속(colored metal, 철과 그 합금을 제외한 모든 금속과 그 합금) △질소비료 △세멘트(시멘트) △통나무 △천 △수산물 △살림집(주택) △철도화물 수송(석탄, 광석, 금속, 목재, 건재(시멘트), 비료 등 수송) 순이다. 참고로 김일성 주석은 43년 전인 1980년 ‘10대 전망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10대 전망목표’로 연간 전력 1000억 kW, 석탄 1억 2천만 톤, 알곡 1500만 톤, 강철 1500만 톤, 유색금속 150만 톤, 화학비료 700만 톤, 시멘트 2000만 톤, 식물 1015억 미터, 수산물 500만 톤, 간석지 개

간 300만 ha를 제시하였다. 12개 중요 고지는 전망목표가 아니라 올해 반드시 점령해야 할 목표로 제시되었다. 10대 전망목표는 10년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또한 10대 전망목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였지만 12개 전망고지는 비공개한 점도 다르다. 12개 중요고지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개 중요고지는 기간공업, 농업, 경공업, 건설과 연관되어 있고 이는 김정은이 내세우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결국 중장기적인 10대 전망목표는 실패로 끝났지만 단기적인 12대 중요고지 달성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듯하다. 북한은 올 한해 사회주의 애국운동, 대중운동과 이를 통한 주민들의 사상, 정신무장 등을 통해 생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주민들의 노동력과 자금을 최대한 쥐어짜는 방식으로 목표 달성에 총력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코로나 상황 완화 여부에 따라 북중, 북러 교역의 확대, 국가 주도의 밀수와 제재 회피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4. 식량문제 해결에 총력

특히 식량문제 해결을 '국가 중대사'로 내세워 농업 생산량 증가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북한은 2월 하순에 농업 문제를 다루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한 상태인데, 북한이 농업문제라는 단일 안건을 다루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연말 전원

회의 후 두 달 만에 '농업'을 단일 의제로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올해 농사가 '대단히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며 식량난의 심각성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22년 북한의 식량생산이 전년 대비 3.8%(18만 톤) 감소하였는데, 악화된 농업기상조건, 코로나 국경봉쇄, 화학비료 수입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식량위기 발생 등 최악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일반 예상과는 달리 선방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에 의존한 밀농사 방법을 확립하고 밀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식생활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식생활을 쌀과 옥수수 위주에서 쌀과 밀가루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량증산을 위한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과학 농사 △우량종자 확보 △관개 구조물 정비보강 △지력 개선 △화학비료 효과 제고 △고능률 농기계 생산 △영농물자 최우선 보장 등을 언급하고 있다. 식량문제를 비롯한 농촌문제 해결을 비롯해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등 사회 법질서를 강화하고 있다. 먹거리 확보 문제에 있어 전국각적인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농업 부문에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올해도 미국의 제재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먹는 문제 해결과 살림집 건설, 생필품 공급으로 민심을 관리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 봉쇄, 그리고 북한경제 내구력 평가 -텃밭 하우스농사 중심으로-

최 설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원)

1. 서론

북한이 2023년 신년 과제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2022.12.26.-31.) 결과로 대체하였다. 연간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신년사 및 전원회의에서는 정치와 경제, 대외부문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북한 신년사에서 경제부문은 최소 지면의 4분의 1정도를 할애할 정도로 중시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건설과 농업 부문에서의 성과만 언급했을 뿐, 화학과 금속, 경공업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적 성과가 평가되지 않았다. 특히 신년정책 논의에서 경제부문 비중이 크게 줄었다.

급변하고 있는 대외 정세 영향으로 북한이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려는 측면도 있겠지만, 코로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경제가 어렵

다는 의미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던 2022년을 영예롭게 이겨낸’¹ 것이라고 발표한 전원회의 내용이 이러한 속살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2023년은 5개년 계획(2021-2023)을 완수해야 하는 세 번째 해라며 인민들이 좋아하는 살림집건설과 농촌건설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살림집건설은 국내 스스로 생산이 가능한 시멘트와 모래 등이 텃밭 침하겠지만, 농촌건설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 농촌건설은 농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공간, 즉 농촌지역에서의 ‘혁신’을 전제한다.

이로부터 본고는 북한에서 진전되는 시장화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던 농촌지역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의 현실을 평가

1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노동신문, 2023년 1월 1일.

하고자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시장 활동으로 개인 텃밭이 자본으로 부각되며 국영농장 시장화를 유인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 간 네트워크로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산업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농촌산업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본고에서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발달하고 있는 ‘텃밭 하우스농사’로 한정하고 코로나 봉쇄 장기화에 대응하는 북한경제 내구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텃밭에서 가치 발견·소비에서 판매로

북한에서 경작지는 국영농장 및 협동농장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국영지와 공장노동자와 농민의 살림집의 텃밭, 즉 비국영지가 있다.² 텃밭은 유일하게 주민들의 경작권이 자유로운 공간이다. 하지만 계획경제로 국영기업과 농장이 운영되고, 주민들은 식량배급제로 살아가던 시기의 텃밭은 단순히 개인이 소비하는 채소생산 수단에 불과했다. 봄철이면 주민들은 개인 텃밭 이랑에 시금치와 감자 등을 심고 고랑에는 옥수수를 심어 8~9월에 수확하는 데, 삶은 옥수수의 달콤한 맛은 밥상에서 가족들이 웃을 수 있는 풍경이었다. 옥수수를 가을한 텃밭에 다시 겨울 김장용 배추와 무, 갓 등을 심는

2 북한에서 살림집주택은 국가가 건설해 주민들에게 배정한 것이므로 주민들에게는 주택이용권만 부여된다. 국가살림집에는 단층과 아파트가 있으며, 각 단층에는 30평 정도의 텃밭이, 평양을 제외한 지방도시 아파트에는 10평 정도의 텃밭이 설계되어 있다. 이는 국가식량이 국가배급으로 공급되어도 주민 스스로 채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16년도에 촬영한 해산시 주택의 모습. 집집마다 텃밭을 가꾼 모습이다 (사진=중앙일보)〉

데, 텃밭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전부 가족이 소비하는 1차 생산물이었던 것이다. 즉 개인 텃밭은 소비 상품을 생산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기근이 나타나고, 생존에 나선 주민들의 장사로 장마당이 형성되며 텃밭의 용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텃밭에 가족이 소비할 시금치와 옥수수를 심는 것보다 시장 판매용 토마토와 고추 등을 재배하면 가족의 식량은 물론 얼마간의 현금도 저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텃밭에서 주민들의 ‘생활철학’이 발견되면서 텃밭 채소가 1차 소비 상품에서 2차 판매상품으로 변화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인 텃밭에서 판매용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방식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도시에서도 시장화가 발달한 지역에서 먼저 부각되었는데, 일반채소보다 가격이 비싼 토마토와 고추 등에 대한 수요는 시장화 발달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토마토는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며, 식사 이후 소비하는 과일이어서 간식

으로 분류된다. 또 고추는 채소로도 사용되지만, 조미료에 사용하는 비중이 크므로 소득이 낮은 주민의 경우 가격이 비싼 고추 수요가 낮다. 이 때문에 산골을 비롯한 농촌에서도 텃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도시와 달리 비도시 주민들의 개인 텃밭은 식량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1) 계절성 상품에서 비계절성 상품으로

북한 주민들의 텃밭³ 용도가 소비 수단에서 생산·판매 수단으로 변화하면서 계절 채소와 과일 수요는 급증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국영 명목의 개인 식당이 급증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금난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국영식당 공간이 개인에게 대부분 임대되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돈주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구입이 중요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입해야 음식의 신선함을 보장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고객확보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채소와 과일 재배에 고심하던 주민들은 텃밭 외에도 살림집 지붕과 창고 지붕에 흙을 깔고 그 위에 토마토와 오이, 고추 등을 재배하였다.

그런데 계절성 채소만 재배한다면 시장경쟁

에서 밀려날 수 있었다. 끊임없는 고뇌 끝에 발상한 것이 비계절성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는 것이다.

비계절성 상품이란 추운 겨울에 재배되어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정과 구정에 딸기와 오이, 고추, 싹갓 등을 시장에 판매하면 계절성 상품보다 열배 비싸다. 하우스 작물이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변모된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겨울철 하우스농사는 인기를 끌었다. 하우스농사는 석탄이 풍부한 평안남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왜냐면 추운 겨울에 하우스 온열을 보장하려면 석탄 연료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석탄이 무진장한 안주시, 덕천시, 순천시 등에서 겨울철에도 싱싱한 오이와 딸기 등이 평양과 신의주 등 대도시 상류층에 외화로 판매되었다는 소식이 이러한 설명이다. 겨울 한철 텃밭 하우스를 운영하면 2천 달러 수익을 확보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2천 달러는 남한에서 1억 원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

겨울철 하우스농사로 달러수익을 올리는 주민들은 보통 한 세대, 즉 남편과 아내, 자녀가 협동하는 형태가 많다. 가족의 협동 방식은 온실의 온도보장, 물 보장, 재배관리, 상품유통이 분업화되어 있다. 석탄, 비닐박막, 비료, 종자 등은 시장에서 구매하지만 관개용수는 개인이 직접 지하에 수동펌프를 설치해 해결한다.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전동펌프를 설치

해 지하수를 끌어올리기도 한다.

(2) 농촌지역에도 하우스농사... 태양광으로 온열보장

북한에서 비계절성 딸기와 오이, 고추 등 농사가 성수기를 맞게 된 새로운 현실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지역 농민들을 하우스농사로 유인하였다.

하우스농사에서 핵심은 토지이다. 도시민과 달리 농민은 텃밭 부지가 상대적으로 많다. 텃밭의 규모는 생산량 규모와 비례하므로 농민들이 하우스농사를 시작하면 도시민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다. 특히 농민은 농사경험이 풍부해 도시민보다 채소재배에서도 뛰어나다. 단 탄광과 멀어 농촌지역의 석탄가격은 비싸다. 하우스농사에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딸기와 오이 등 판매가격도 상승한다. 판매가격이 상승하면 시장판로는 어렵다.

이로부터 등장한 것이 태양광이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태양빛판’으로 불리운다. 말 그대로 태양빛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전자판’이라는 의미이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산 태양광이 북한으로 대량 수입된 것은 국내 태양광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태양광의 초기 용도는 주로 주민들의 살림집 조명에 사용되었지만⁵ 이제는 TV

시청과 세탁기 사용을 넘어 하우스농사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용량에 따라 가정용과 농사용으로 분류되는 데, 하우스농사에 사용되는 태양광은 100W 이상이다.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해결함으로써 하우스온열을 보장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날씨가 흐린 날을 대비해 태양광 두 개를 구입하고 예비전력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수령도 국가도 해결 못한 전기를 태양빛판이 해결해준다는 게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다.⁶

(3) 협동농장으로 확대된 하우스농사

태양광으로 에너지가 해결되자 하우스농사는 확대되었다. 물론 전국의 농민들이 하우스농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농촌과 연결된 도시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우스 채소와 과일은 시장이 발달한 도시에서 주로 소비하므로 소득이 높은 도시 주변 농촌에서 하우스농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예를 들어 농업지역으로 알려진 황해남도는 수도 평양과 차량 운송거리가 가능하므로 딸기와 고추 등이 텃밭 하우스에서 재배되어 주문계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텃밭 하우스에서 주문계약으로 거래처를 더 많이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텃밭, 즉 토지 보유량이 많아야 한다. 이에 농촌에서는 개인 돈주들이 협동농장 농경지를 임대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개인 돈주들의 농경지 임대는

3 텃밭은 개인이 관리하는 토지로 국영농장 토지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텃밭 외 개인이 관리하는 토지에는 피기밭도 있다. 텃밭이 살림집 마당이나 주변에 있는 토지라면 피기 밭은 산이나 강가, 과수밭, 웅덩이 등을 개간한 토지를 말한다. 지역마다 텃밭을 의미하는 용어도 다르다. 함북도와 양강도 등 북쪽 지역에서는 텃밭과 피기밭 등을 통 털어 개인 소토지라고 하지만, 평안도를 비롯한 내륙지역에서는 텃밭으로 통용된다. 본고에서는 텃밭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4 “北주민, 암거래로 산 토지에 비닐하우스 건설해 딸기농사” | DailyNK 2016년 12월 15일.

5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빛판은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서 생산된 것으로 10W용 가격은 80위안(元), 30W는 240위안, 50W 400위안, 100W 800위안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재산목록 1호는 태양열판?” 전기 부족 탓 태양열로 자체 해결-국민일보 (kmib.co.kr) 2015년 4월 24일.

6 “장군님도 해결 못한 ‘전기난’ 이것이 해결한다는데...” | DailyNK. 2015년 4월 23일.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지구의 대규모 남새(채소)생산기지인 연포온실농장. 해당 농장은 서울 여의도 면적인 280정보(약 84만평)에 850개가 넘는 온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RFA)〉

협동농장 입장에서든 환영을 받았다. 협동농장의 입장에서는 국가농경지를 개인에게 임대해 주어야 포전담당책임제로 국가에 바쳐야 할 현물계획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협동농장에서 직접 하우스 채소와 과일을 재배해 시장에 판매하며 국가계획을 수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⁷

7 북한은 2012년 협동농장의 농지를 분조별로 나눠 책임 경작하는 포전담당책임제를 확장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분조단위를 농민 3~5명으로 구성하고, 농민 1인당 농경지 1700평~3,000평 분여하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민이 농사지어 국가에 60% 바치고 나머지를 개인이 소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가 망하면 수확량이 절반 줄지만 국가에 바쳐야 할 알곡현물계획은 무조건 내야 한다. 이에 농민들은 포전담당책임제로 부여되는 농경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농경지가 하우스를 운영하는 돈주들에게 임대되었던 것이다. [2019 북한의 시장경제 전망] © 포전담당책임제의 명암 — RFA 자유아시아방송. 2019년 1월 9일.

3. 결론

결론적으로 텃밭 하우스농사는 도시 주민에서 농촌지역 농민으로, 다시 협동농장으로 확대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 네트워크 산업으로 발달하였다. 특히 텃밭에서 재배되는 채소와 과일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품목으로 변화한 배경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 주도의 이동통신 시장이 탄력을 주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다. 북한에 손전화 사용자가 500만 명으로 증가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다. 그만큼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반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제조되는 스마트폰 앱에 농업관련 상식을 자세히 소개



〈그림-1〉‘평양’ 스마트폰에 설치된 각종 도서앱 (출처: 필자 입수)

한 것도 주목된다. ‘평양’ 스마트폰에 설치된 ‘조선대백과사전’ 앱에는 오이, 도마도, 참외를 비롯한 온실농사(하우스)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향참외는 땅과 비료에 대한 요구성은 보통이다. 병과 가물에 견디는 힘은 세고 습해에 견디는 힘은 약하다. 정보당 소출은 15톤 정도이다. 이 품종은 온실에서 재배하고 있다”는 등이다. ‘평양’ 기종 뿐 아니라 ‘푸른하늘’, ‘진달래’ 기종의 스마트폰에도 ‘나의 길동무’ 앱을 터치하면 각종 도서 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앱 중에서 ‘사회문화도사전’을 누르면 농업 부문 관련 다양한 지식과 상식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그림-1〉과 〈그림-2〉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채소와 과일이 텃밭하우스를 넘어 아이티 산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대북제재와 코로나 봉쇄 장기화에 대응하는 북한 경제 내구력의 단면을 텃밭 하우스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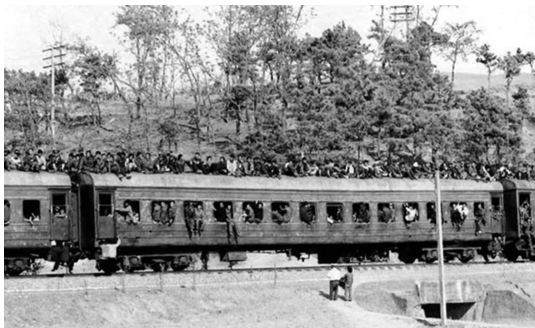
〈그림-2〉‘평양’ 스마트폰에 설치된 농업부문 자료 (출처: 필자 입수)

소집하고 농업발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배경이 식량난 악화라는 시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농업부문에서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라는 해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코로나 봉쇄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 경제의 내구력 강화는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지 않는 자국의 농경지가 최대 가치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준공한 대규모 채소재배지인 연포온실농장(하우스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에 온실농장 건설을 장려하는 것은 농경지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 내구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끝)

이끄심

3화 - ~~북한~~ 알라크 : 고향을 떠나다 (1)

김 서 윤 전도사



나는 그 긴 여정에서 많은 것을 듣고 보았다. 열차를 타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역전에서 온 가족이 쭈그려 앉아 잠을 청했다. 씻기 위해 돈을 주고 물을 사면서 참으로 세상이 삭막해졌구나 하고 느꼈다. 그리고 우리가 메고 있는 가방 속 내용물이 전부 간부들에게 먹일 뇌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담배 몇 보루를 들이밀고 간신히 열차에 올라탔지만 기차는 좀처럼 출발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전기 사정은 너무나 열악하여 기차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했다. 출발하지 않는 기차에서 출발하기만을 간절히 빌었던 것이 여러 날이었다.

그런 와중에 먹고살기 위해 장사 길에 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 머리 위를 밟고 기차에 올라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에서 기차는 그야말로 아우성과 구타가 난무하는 생지옥을 방불케 하였다. 그렇게 더는 사람을 태울 수 없을 즈음에야 기차는 비로소 출발하였다. 미처 열차표를 구하지 못하고 뇌물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차 지붕으로, 기차 밖에 계단으로, 혹은 간신히 창문에 매달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 허리를 펴다가 전기선에 치여서 죽는 사람 등 너무도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기차 안 민심도 그다지 좋지 못했다.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 어둠 속에서 구타와 쌍욕이 오갔다. 우리는 열차가 큰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내려야 했다. 여관에 들어서 씻고 식사한 끼 사 먹으려고 장마당으로 갔다. 기차에서 배고픔에 시달린 동생과 나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두부밥이 너무나 먹고 싶어 침을 꿀

각꿀각 삼켰고, 그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 기꺼이 그 밥을 사주셨다. 너무나 기쁜 그때, 두부밥을 파시는 아주머니께서 하신 "소매치기한테 조심하세요"라는 말에 "네?" 라고 되묻는 사이, 그만 뒤에서 다가온 꽃제비 소년이 두부밥을 낚아채서 도망갔다. 신기할 정도로 빼만 앙상하게 남은 그 아이들은 도망가면서도 훔친 음식을 입에 쑤셔 넣으며 달렸다. 두부밥 맛을 보기도 전에 꽃제비 소년에게 빼앗겼을 땐 너무 놀라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소매치기가 도망간다는 소리를 들은 어떤 아저씨가 여동생의 두부밥을 낚아챈 꽃제비 소년의 뒷목을 잡고는 때려 주었다. 그 아이가 장사꾼 사람들에게 구타당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던 우리는 울면서 때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며 장마당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맞는 와중에도 그 아이는 손에 묻은 밥알이 하나라도 더 있나 살피며 손을 핏었다. 그렇게 우리는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기차와 함께 길바닥 생활에도 점차 익숙해질 무렵에야 드디어 양강도 혜산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어머니와 우리는 여관에 짐을 풀었다. 외지인으로서 괜한 의심을 받을까봐 어머니는 친척을 찾고 있다고 여관 주인에게 둘러대셨다. 그때까지도 나는 정말 친척 집에 가는 줄로만 알았다.

낮에 어머니를 따라 압록강 강변에 나가보니 아주머니들이 압록강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강가 주변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강가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어렸기에 얼음길을 왔다 갔다



〈북한 두부밥〉

하며 놀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소상히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쪽과 저쪽에서 빨래하는 아줌마들이 서로 담소를 나누며 빨래 사이에 몰래 무언가를 서로 건네주고 받는 것을 관찰했다. 중국 쪽에서는 대야에 비닐에 싼 돈뭉치와 설탕, 하얀 비누 등을 넣고 빨래로 덮어서 보내면 북한 쪽에서는 슬쩍 대야를 끌어다가 미리 준비한 구리, 사금 그리고 알 수 없는 물건을 싼 봉투 같은 것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실수로 물에 떠밀려 간 것처럼 보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들은 나에게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며 마치 나를 원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기하였다. 그러고는 대충 빨래를 마무리하고 군인 아저씨들에게 그만 간다고 하면서 주머니에 돈과 담배 한 보루를 찢어 주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떴다. 나는 이 재밌는 광경을 어머니에게 신나서 조잘조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사뭇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

우리는 매일 밤 압록강으로 나갔다. 어머니께

서는 곤히 자는 우리를 깨워서 조용히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는 아무 소리 않고 옷을 입고 엄마를 따라나섰다. 강가에서 우리는 숨죽이며 도강할 기회를 엿보았다. 영하 30도가 넘는 기온과 두 불과 귀를 쏘는 듯한 칼바람이 우리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그렇게 눈 속에 몸을 쭈그린 채로 밖을 살피고 북한 군인들이 지나가면 숨기를 반복하다 돌아오기가 여러 날이었다. 애들을 주렁주렁 달고 와서 친척 집에 간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머물러 있으니 여관 주인이 이상해하는 눈치였다. 어머니는 친척이 이사했는지 집 주소가 잘못되어서 알아보고 있다고 둘러대셨다. 우리도 정말 친척집 주소가 잘못되어서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왜 매일 밤 강변에서 모두의 눈을 피해 숨어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어머니께서 뭔가 큰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짐작할 뿐이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우리는 강변에 잠복하였다. 총을 맨 군인들이 2인 1조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은 그 밤, 남동생은 춥고 졸린다고 칭얼거렸고 어머니는 그런 남동생을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탕탕" 총소리가 났다. "도강자다!!" 라는 외침과 함께 총을 쏘대는 소리가 들렸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총소리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총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어떤 젊은 한 여성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가로지르며 험레벌떡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고 있었다. 한동안 총소리가 이어지고는

군인들이 화를 내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놓친 것이었다.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날의 충격을 목격하시고 좌절하셨다. 혼자 강을 건너는 것도 이렇게나 위험한데 애들 셋을 데리고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뜬눈으로 밤을 새운 우리는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여관을 나와 북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우리 삼남매는 드디어 친척을 찾았나보다 하고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나섰다. 그런데 어머니는 압록강 강변을 따라 동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셨고, 보천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해서야 걸음을 멈추셨다. 어머니께서는 혜산에서의 도강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압록강 상류로, 더 깊은 산악지역으로 이동하셨던 것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그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마을 주민들도 얼마 없고 먹을 것도 넉넉지 않았다. 혜산에서는 장마당에 나가면 먹을 것이 많았고,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걸 사먹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몇 날 며칠을 하루 두 알 감자만 먹었다. 너무 배가 고팠다.

그러는 가운데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해가 바뀔 즈음이 되었다. 여전히 밤마다 강변을 살피기를 반복한 우리 가족에게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오고야 말았다. 그날도 아침부터 온종일 끼니를 거르고 허기진 상태였지만 밤하늘에 뜬 달은 밝고 환하게 빛났다. 이곳은 시골이라 그런지 혜산만큼 군인들이 많지 않았고 보초를 서는 군인들도 경계가 조금은 느슨한 편

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붙잡고 비장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서윤이는 지금부터 엄마 말을 명심해 들어라. 지금부터 네가 먼저 강둑 밑으로 내려가서 짐을 받고 그다음 동생들을 받으렴. 마지막으로 내가 내려갈게."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나를 강둑 밑으로 보냈다. 순간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떨어졌다. 아파할 사이도 없이 동생들이 후드득 내려오는 걸 받아야 했고 짐도 연달아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내려오셨다. 어머니는 몸을 낮추어 주변을 살피시고는 조용히 우리에게 "하나, 둘, 셋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기 보이는 산까지 뛰는 것이야. 그리고 혹시라도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라고 하셨다. 우리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구령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길을 헤치며 달렸다. 뒤에서 누가 내 목덜미를 잡을 것 같은 오싹함에 걸음아 나살려라 하는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무릎까지 쌓여 있는 눈을 가로지르다 보니 달린다는 표현이 무색하게 우리는 네 발로 기어가는 꼴이 되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은 목숨이었다. 그 추운 밤 그렇게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이마에서 땀이 후드득 떨어졌고 몇 겹씩 껴입은 옷이 젖어 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어가다 누가 불세라 산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침내 강을 건넌 것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우리들의 눈썹에는 눈꽃이 새하얗게 피어있었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어머니는 우리의 신분을 들킬만한 모든 증거물을 즉시 태우셨다. 불타는 증서들을 보며 나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다시는 내 단짝 친구 영희도, 그리운 아버지도 만날 수 없겠구나.' 차가운 눈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게 불었지만 내 볼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중국으로 넘어온 그날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설새 없이 터지던 폭죽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중국에서는 풍습에 따라 춘절(음력설)을 기념하여 폭죽을 밤새 터트렸다. 어느새 집을 떠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해가 바뀌고 음력설을 맞은 것이다. 사방에서 들리는 폭죽소리는 너무나 공포스러웠다. 더 괴로운 것은 폭죽이 터지고 난 뒤의 화약 냄새였다. 그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하루 종일 굶은 빈속이었는데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렇게 폭죽 터지는 소리와 구역질나는 냄새, 여기저기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우리는 중국 땅에 입성하였다.

영겁결에 중국 땅에 왔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막막했다. 땀으로 범벅되었던 몸은 영하 30도가 넘는 날씨에 금세 동태처럼 얼어붙었고, 피곤함과 배고픔이 더해지면서 생각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나마 배고픔은 참는다고 하지만, 이 추운 날씨에 피곤은 이길 수 없었던 우리는 마침 인적이 없는 한 초막을 발견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라고는 없는 그 초막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스르르 달콤한 잠에 빠졌다. 얼마나 잤을까...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떠 보니 자고 있는 우리 가족을 보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떼로 몰려오고 있었다. 어서 도망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이 싹 달아났다. 멀리서 봐도 좋은 의도로 우리를 쫓는 것은 아닌 듯 보였다. 우리는 잡히지 않으려고 험레벌떡 도망갔다. 한참을 달렸지만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끝까지 따라왔다. 우리를 잡으려고 쫓는 것이 확실했다. 우리는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더 깊은 산 속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고 나서야 우리를 쫓던 인기척이 찾아들었다. 숨차고 놀란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다. 언제라도 다시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눈을 피해야 함을 동물적으로 알게 되었다. 낮에는 산 속에 몸을 숨겼다가 밤에만 걸었다. 그렇게 날이 어둡어둡해지면 줄지어 걷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소리가 들리면 길 옆 비탈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몸을 피했다. 그리고 모든 소리와 불빛이 사라지면 그제야 다시 길가로 기어 올라오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렇게 산을 하나 넘고 또 마을을 지나고 다시 산을 넘었다. 우리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았고 추위도 큰 난관이었다. 눈발을 해치며 걷는 동안 발은 쑹쑹 얼어붙었고 매서운 칼바람까지 휘몰아쳤다.

하필 그 날은 눈이 억수로 내렸다.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쳐 왔다. 눈이 거의 1미터 가량 쌓였는데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지 주변에 마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발은 쑹쑹 얼어붙어 동상에 걸리기 일보직전이었고, 눈보라

때문에 눈이 떠지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던 찰나에 건너편 산 중턱에서 조그마한 불빛이 반짝였다. 그 희미한 불빛은 우리 가족에게 실낱같은 희망이었고,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죽게 생긴 일가족을 살려주신 구원의 불빛이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죽을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갔다. 오두막 안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는데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 한참을 문 하나를 두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밖에서 서성거렸다. 그러던 찰나, 문이 열리면서 러시아식 털옷과 털모자를 쓴 할아버지 세 분이 사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사냥총과 횃불을 들고 나오셨다. 그 모습을 본 우리도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횃불로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신 그분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발을 해매는 엄마와 어린 아이 3명이었다. 오밤중에 눈보라가 휘몰아쳐 오도 가도 못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본 그분들은 우리를 딱하게 여기시고 오두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 오두막은 산에서 참숯을 만들기 위해 일꾼들이 쉬는 공간이었다. 자그마한 오두막은 참포근해서 하룻밤 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었다. 덜덜 떨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들은 자신들이 쓰시던 담요를 덮어주셨다. 우리 가족은 그 담요를 덮고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그렇게 깊은 단잠을 자고 일어난 우리에게 할아버지들은 중국식 배추절임과 돼지고기를

잘게 다져 넣고 끓인 입쌀 죽을 한 그릇씩 퍼주셨다. 우리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음식에 감탄할 새도 없이 그 뜨거운 죽을 게 눈 감추듯 후루룩 마셨다. 아직도 그때 먹었던 그 죽을 잊을 수 없다. 다시 찾아보라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오두막집, 그리고 우리에게 하룻밤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친절을 베풀었던 할아버지들... 얼마나 감사한지 잊을 수가 없다. 그날 그곳에서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마 얼어 죽었을 것이다.

여정이 길어지니 점점 요령이 생겼다. 이제는 낮에도 인적이 없으면 길을 따라 걷다가 오토바이나 차 소리가 들리면 다시 눈 속이나 비탈로 몸을 숨겼다. 우리에게 숙소는 산 전체였고, 우리의 침대는 눈 덮인 산속이었으며, 목이 말라 마시는 물은 하얀 눈이었다. 그러다 얼어 죽을 지경에 놓였다 싶은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몸을 녹여줄 비어있는 초막집을 만났고 잠깐씩 몸을 녹일 수 있었다. 그 중 한 과수원의 초막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또렷하다. 그 초막집의 천장에는 주렁주렁 씨앗이 매달려 있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씨앗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남의 것을 함부로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건드리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그 씨앗들은 봄이 되면 밭에 뿌릴 씨앗으로 약을 쳐놓은 상태들이었다. 그 때 배고픔에 못 이겨 그 씨앗에 손을 대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한참을 앉아 쉬고 있는 그 때 문이 열리며 그 과수원 주인과 그 아들이 초막집에 들어왔다. 그 부자는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집주인은 끝



까지 중국말로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지만 옆에선 이제 막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들은 더듬더듬 조선말을 써가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기도 하고 아버지를 설득해 우리를 도와주자고 했다. 우리가 허기진 모습을 본 그 집 아들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우리에게 내 주자고 보챘다.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어주며 빨리 먹고 가라고 손짓하셨다. 우리는 고마워하며 받은 도시락으로 요기를 하고 그들이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 그곳을 빠져 나왔다. 그 아저씨는 우리가 행여나 그곳을 떠나지 않고 다시 올까봐 불안했던지 우리가 멀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계셨다.

종종 마주하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 덕분에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수 있었지만, 추위와 배고픔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우리 가족 모두 배가 너무 고프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말았다. 잠깐 누우면 눈 속에 파묻히게 되고 그 상태로 깊이 잠들면 동상으로 얼어 죽는 다며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깨우셨다. 여동생과 나는 그래도 이 악물고 걸었지만, 이제 갓 6살인 남동생은 잘 걸지도 못했다. 춥고 배고프


고 발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다며 남동생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칭얼거렸다. 이대로는 그 누구도 한 걸음조차 움직일 수 없음을 아셨던 어머니는 뭐라도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고 결심하셨는지 어린 나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대문이 열려있는 한 집을 기웃거리셨다. 마침 개 짖는 소리에 집주인 아저씨가 나오셨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 중국말로 뭐라고 하셨는데 어머니와 나는 손짓 발짓 다 해가며 배고픈 시늉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숨겨놓으셨던 100위안을 꺼내서 아저씨에게 주시고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참 돈을 빚에 비춰보다가 우리의 물골을 쳐다보시던 아저씨는 곧 부엌에 들어가시더니 만두 두 개를 가지고 오셨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아마도 본인의 식사를 위해 준비한 음식인 듯 했다. 아저씨는 그 만두를 우리에게 건네시고는 돈은 받지 않으시고 어서 가라고 손을 내저으며 우리를 내보냈다. 처음 보는 만두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나는 배가 불러왔다. 동생들이 있는 산속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만두를 4등분해서 나누어 주셨다. 나는 한 조각은 입에 넣고 다른 한 조각은 아껴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그 만두 한 조각의 힘을 빌어 다시 목적지를 향해 걸었다.

우리 가족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남조선으로 정해져 있었다. 중국에서 정착해서 살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남조선에 가기 위해 길림성 길림시에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떠난 것이 전부였다. 요즘에야 내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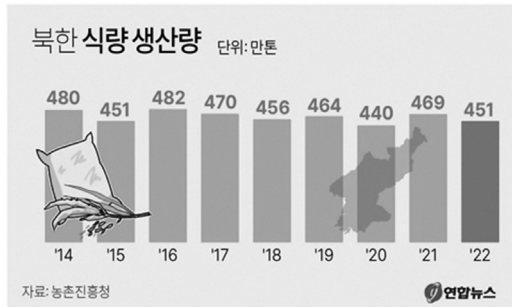
이션이나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으며 자동차로 이동한다면 하루면 도착할 거리이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24년 전의 우리는 길이 보이면 무작정 그 길을 따라 걸었고, 그렇게 수많은 밤을 헤매고 또 헤맸다. 아무리 걸어도 우리들 뒤편에는 압록강과 북한이 계속 보였다. 언제든지 북한의 군인들이 강을 건너와 우리를 붙잡아 갈 것만 같았다. 두려움에 함부로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온 몸을 바들바들 떨며 잠을 자곤 했다. 어머니와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특히 이제 여섯 살 정도 된 어린 막내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다. 더 이상 지쳐서 못 견뎌다는 남동생을 어머니께서 등에 업고 발길을 재촉하기도 하셨다. 그렇지만 어머니도 힘드시기는 마찬가지였고 설상가상으로 험한 길을 걸으며 신발도 다 헤어졌다. 어머니 발바닥은 찢어져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고 갈라진 발고랑 마냥 속살이 보였지만 험겨온 실과 바늘로 찢어진 발바닥을 꺾매는 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였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남동생은 이제 자기를 그냥 산에 버리고 가라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엄동설한에 변변한 신발 하나 없이 앙상하고 조그마한 발로 험한 길을 걸어온 동생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이해가 되었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어머니는 남동생더러 알아서 오라며 내버려 둔 채 저만치 앞으로 가버리셨다.

나는 진짜 엄마가 남동생을 두고 가시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남동생이랑 울었다. 그리고 조

금만 힘내보자며 남동생을 달랬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남동생은 나의 다독임에 다시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앞서가신 엄마를 따라 가려고 부지런히 걸어갔다. 한참을 걸으니 저 앞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시고 나무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이 오고갔지만 어찌 그것이 진심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다시는 모진 말 하지 않고 버리고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사과하셨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힘을 내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아... 아까 먹었던 만두를 하나만 더 먹었으면 힘이 날 텐데...” 하며 중얼거리셨다.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배가 고파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는 무심결에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아껴놓은 만두 조각이 손에 잡혔다. 손에 잡힌 그 만두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 만

두!" 하며 꺼내드렸다. 어머니는 내 손에 든 그 만두를 보자마자 누가 뺏어먹을새라 순식간에 삼키셨다. 나는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드시는 모습을 본적이 없었다. 어머니 자신도 어찌 그리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는지 상상도 못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어머니는 한참을 나의 빈 손을 보시다가 아껴놓은 만두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광경에 놀라 눈물이 글썽하게 고인 나의 눈과 시선을 마주치셨고, 무안하게 들고 있는 내 손을 쏙 잡으시고 고마워 하셨다. 여전히 어머니는 그때 그 만두를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이야기하신다. 그 만두 한 조각이 어머니를 걷게 하는 힘이었으며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끝까지 지키며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큰 격려였다고 한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금 서로를 격려하며 꼭꼭 뭉쳐 한 마음 한 뜻으로 걸을 수 있었다. (계속) 

北 개성에 하루 수십명씩 아사자… 양곡 유통 통제 영향으로 추정



반종빈기자 20230206

연합뉴스는 2월 6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개성에서는 식량난으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혹한 피해까지 겹쳐 극심한 생활 고로 자살자까지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성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고도 뒤늦게 지난달 중순 고위 간부를 현지로 파견해 실상을 파악했다. 그러나 개성 지역내 혼란이 심화하고 민심이 악화하자 지난달 말 측근들을 다시 현지로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첫 번째 파견 후 개성시에 '2월부터 식량을 국정가격의 절반에 배급할 것'을 지시했으나, 두 번째 실상 파악 과정에서 민심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식량을 '무상배급'하라고 결정을 급변경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더욱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배급량 중 일부를 반납하라'는 지시가 각 지방 당국에 내려졌는데, 이는 개성의 무상배급으로 부족해진 전체식량 비

축량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실제 북한 매체에서는 '애국미 헌납운동'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고 농민들에게 식량을 헌납하라고 연일 독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말 장마당을 배제한 채 곡물의 생산·유통을 직접 통제하는 '신양곡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식량 조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식량난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김정은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책을 변경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식량 상황 안정에 써야 할 재원을 핵과 미사일 도발에 쏟아붓고 있어 제2, 제3의 개성 비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이런 개성 상황은 북한이 지난 연말 전원회의 이후 약 두 달만인 이달 하순 이래적으로 농업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 발표를 인용해 전년도 식량 생산량은 2022년도 451만이었으며, 2021년에는 469만이었다며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전년보다 3.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 탄도미사일 발사... 48일 만에 추가 도발



북한이 2월 18일 동해상으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해 벽두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만이자, 올해 두 번째 도발이다.

이번 도발은 국방부가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부활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났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는 오는 2월 22일 한미가 미국 국방부에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하고, 내달 중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을 진행한다고 각각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로도 분석된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가 정당한 우려와 근거를 가지고 침략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저들의 훈련 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도 공개 반발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2월 20일 북한을 추가 제재했다. 이날 추가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 4명과 기관 5개이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추가 제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역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北 열병식에 ICBM·전술핵부대 등장… “최대 핵공격능력 과시”



미국 Maxar Technologies사 위성사진
화성-17 ICBM 중대(추정)
고체연진 중장거리 미사일 중대(추정)
〈지난 2월 8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미국 상업위성 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사진. (사진=NK조선)〉

북한이 2월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했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 사열했다.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김주애도 대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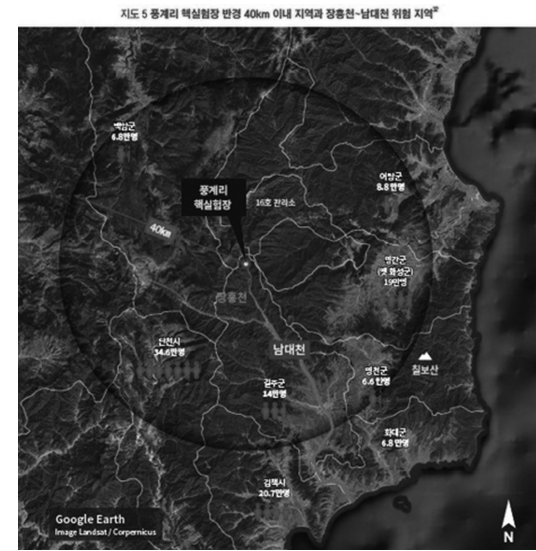
이번 열병식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운용부대 등이 등장했다. 2월 9일 조

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열병식 사진을 보면 최신 ICBM 화성-17형이 무더기로 동원됐고, ICBM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도 식별됐다.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유사한 급의 4연장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순항미사일을 탑재했다고 추정되는 5연장 이동식 발사대(TEL), 4연장 초대형 방사포, 240mm급으로 평가되는 방사포, 152mm 자주포, 제식 명칭이 파악되지 않는 신형 전차 등도 나타났다.

해당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진행되지 않아 예상되었던 공세적인 대미, 대남 메시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대신 열병식에 참가한 각급부대·단위의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제국주의폭제를 힘으로 제압 평정하기 위해 군대가 더 강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주민 수십만명 방사성 물질 영향 우려



지도 5 풍계리 핵실험장 반경 40km 이내 지역과 장흥현-남대천 위험 지역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반경 40km 이내 지역 (사진=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보고서)〉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주민 수십만명이 방사성 물질의 유출 영향권에 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은 2월 21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과 영향 매핑' 제하 보고서에서 핵실험장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확산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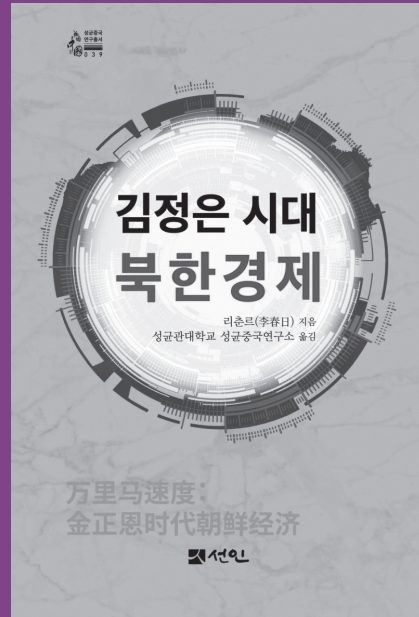
보고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강수량과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간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 주민 약 108만 명 중 영향 받는 주민을 50%로 가정하면 약 54만 명, 25%로 가정하면 약 27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TJWG는 풍계리 인근에 살았던 탈북민들의 피폭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JWG는 "국회에서는 2019년부터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에 대한 전수 검사 실시를 통일부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 권고했지만 두 기관은 2019년부터 검사를 중단했으며 현재(2월)까지도 재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에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의 지하수 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하에서 핵실험을 진행했고, 암반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암이라는 점에서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핵실험시 암석이 녹아내려 굳는데 방사성 물질이 그 안에 갇혀버린다"며 "그래서 지하수로 거의 유출이 안되며 일부 (암석)가 깨져서 약간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확산 속도가 느려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통일부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뢰해 실시한 탈북민 30명에 대한 피폭 검사에서는 4명(13%)이 안정형 염색체 이상 7~10개, 방사선량 중앙값은 279~394mSv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실시된 탈북민 10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5명(50%)이 안정형 염색체 이상 7~59개, 방사선량 중앙값은 279~1386mSv에 달했다. 원자력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연간 방사선 피폭량 기준은 20mSv다. 〈참고: 연합뉴스, 데일리NK 2월 21일〉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저자: 리춘르(李春日),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역
출판사: 도서출판 선인
발행일: 22년 8월 10일
가격: 26,000원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행보를 살펴봄에 있어서 경제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사회주의 진형의 붕괴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배급이 중단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서 큰 혼란을 경험했던 북한은, 이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비롯하여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장마당을 비롯한 일부 시장경제 요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경제 정책 변화는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북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장마당 중심의 시장 경제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전향적인 경제조치와 임가공 무역 확대 등 대외 교역 활성화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

속된 핵개발로 인한 강화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봉쇄 상황이 겹치면서 경제난이 가중되었다.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자력갱생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과거로의 회기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실 북한 내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정보 부족과 접근의 한계는 물론이고 자유시장경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직관적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경제에 관한 상당히 흥미로운 경제 서적이 눈에 들어왔다.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리춘르(李春日) 씨의 저서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이다. 저자는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EMBA 석사와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북한 경제 전문가이다. 이 책은 김정은 시대 초기에서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추진해온 경제 정책의 내용과 이러한 정책이 실제 국내 각 기업소나 농장 등 경제 주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외부세계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출신으로서의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접 북한에서 경제를 공부한 경험 등을 가진 저자의 양력은 이 책에서 북한 경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에서는 ‘최근 북한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대내외 정치 경제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2장에서는 “병진노선 시기의 북한경제”라는 제목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도까지의 북한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2018년 이후 21년도까지 북한의 경제 정책을 살펴본다.

개인적으로 유익했던 내용은 북한 기업소와 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분조 내 포전담당제 등의 적용을 통해 기업소나 농장의 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이 책은 이러한 제도가 개별 기업소와 농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점은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객관적 경제원칙 존중에 대한 강조의 대목이

었다. 먼저 분배원칙에 대해서는 각 기업소와 농장에서 국가에서 정한 계획 이상의 잉여 생산물/이윤에 대해 소속 근로자나 농민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일한 만큼, 벌어드린 만큼” 각자에게 분배한다고 한다. 반면 동일 분배 원칙에 대해서는 오히려 “평등주의와 공짜를 바라는 현상”으로 배척한다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북한에 대한 상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객관적 경제법칙은 쉽게 말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생산과 가격의 조절이다. 과거 계획경제 하에서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이 아닌 국가 계획에 따른 배급용으로 물건들이 생산되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각 기업소가 재량권을 가지고 제품을 구상하고 생산한다. 그리고 기업소들이 생산된 제품들은 인민, 즉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 이제 기업소들은 인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낮은 원가로 저렴하고 품질 좋게 생산해서 공급해야만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고 소속근로자도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내 기업소들은 일종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자연스럽게 상품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 예로 든 금첩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사례의 경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당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변질 이슈에 대응하여 방부효과를 살리고 유통기한을 명시하는 등 이 공장 제품은 품질변화가 없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고 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만 국가 배급 대신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배급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업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면 더 좋은 설비로 공장을 개선할 수 있고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월급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 열기를 더욱 북돋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설명이다.

이 책에서 서술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경제는 확실히 과거의 계획과 통제 일변도의 그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기업소나 농장 등 경제단위의 활동 뿐 아니라 국가적 시스템에도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다. 한 예로 과거 북한은 거의 무료로 전기를 공급했지만 지금은 전기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걸어진 사용료로 석탄을 구매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전에는 무료로 공급했던 많은 요소들이 유료화 되는 매정한 처사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책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경제 정책과 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그 곳에서 성공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이 점이 이 책의 강점이라면 진입장벽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은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한 표면적인 설명 뿐 아니라 정책 이면에 담긴 당국의 입장과 배경, 그리고

경제 단위에 적용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이러저러한 경제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러한 정책과 법률이 어떻게 현장에서 시행되고 반영되는지는 파악이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실제 기업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

한계나 진입장면이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이 책은 북한의 실제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실태 등 깊은 속사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시피 하다. 낱것의 북한 경제 상황을 알기 원하는 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대북 사업을 염두에 두는 독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는 물론이고 북한의 정치·경제적 입장에 대해 대변해주는 느낌으로 서술하고 있다. 북한 내 사례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북한 사람들의 지도자에 대한 감사나 충성의 표현 등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북한 당국의 입장을 담은 책이라는 인상에 거부감을 느낄 독자들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왜 이러한 경제 정책을 펼치는지를 북한의 언어로 이해하는 데에는 이러한 서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중국에서 저술된 북한 투자를 돕기 위한 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 책에 접근한다면 필요한 정보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의 경제난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여러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 아사자가 발생하여 고위급 간부가 2차례 급파되었다는 뉴스가 있었고, 북한 전역에 기아에 시달리는 절량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가을 식량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이른 현 시점에서 기아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의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은 무엇보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 중에는 적대계층으로 취급받는 기독교인의 후손이나 친척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취약계층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돕고자 애쓰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많은 핵무장으로 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외화를 얻기 위해 기존의 암호 화폐 해킹 외에도 러우전쟁 종식 후 러시아 점령지 재건사업 참여 등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기 어려운 방법을 동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에 자신의 안위를 의존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국민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 더 많은 도발을 실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북한을 비롯한 각 국의 정책이 평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동사상문화법 및 청년교양보장법 등 코로나 기간에도 기독교 박해에 이용될 수 있는 여러 법률을 만들었던 북한은 최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추가로 제정하여 사람들의 일상 언어까지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을 더욱 강력한 통제와 억압, 박해로 풀어내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과오를 반성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중국의 포스트 코로나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중 간의 물적 교류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적 교류도 현재는 제한적이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 관광 산업 등에 다시금 힘 쓸 가능성이 높아 북중 인적 교류의 활성화가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가 앞으로의 북한선교에도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길 기대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 속히 안정화되고 중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개

북한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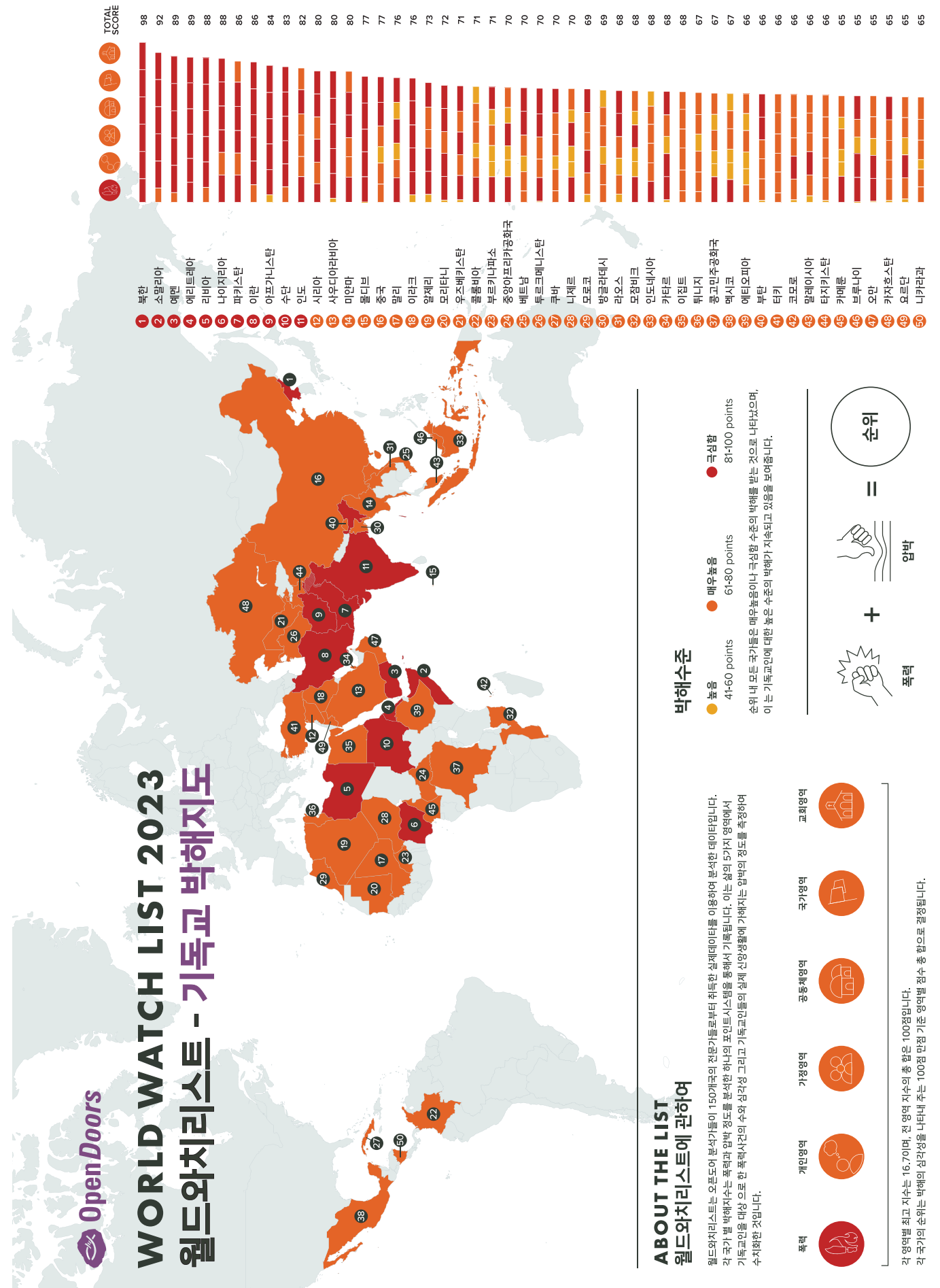
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북한 당국의 외화 벌이를 위한 해외 노동력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작년 말 중국 당국의 코로나 전수검사를 통해 단동지역 거주 북한노동자의 수가 8만여 명으로 확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재건사업에 북한의 인력을 동원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은 북한 당국의 돈벌이를 위해 악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교적으로는 북한 사람과의 접촉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 해외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북한 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적을 초월한 교회의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봉쇄기간동안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국경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해왔고,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023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3월 20일부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번 북한선교학교는 총 17주 과정으로 다양한 강의와 소그룹 모임, DMZ기도여행과 비전트립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와 성도들께서 이를 구체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선교학교의 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각 순서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북한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한 북한 선교에 뜻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3년 2월 28일



2023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굳세게 하라는 주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기회가 될 북한선교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강의 내용

순서	일자	강의 내용 (예정)	강사
1	3. 20	북한선교와 한국 교회	하충엽 교수 (송실대)
2	3. 27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정종기 교수 (아신대)
3	4. 3	북한의 경제 (장마당과 돈주)	정은찬 교수 (통일교육원)
4	4. 10	북한의 사회와 문화	강동완 교수 (동아대)
5	4. 17	북한 기독교사	유관지 목사 (북한교회연구원)
6	4. 24	북한기독교 박해 실태 증언	박한나 목사
7	5. 1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목회	김효민 목사 (봉선중앙교회)
8	5. 8	북한인권과 북한선교	이한별 대표 (북한인권증진센터)
9	5. 15	탈북 청소년 사역	윤동주 교장 (우리들학교)
10	5. 22	비즈니스미션과 북한선교	이찬욱 사무총장 (IBA)
11	5. 29	DMZ 기도회	
12	6. 5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선교	정인수 선교사 (CCC)
13	6. 12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대표 (TWR)
14	6. 19	제삼국에서의 북한선교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15	6. 26	제삼국에서의 북한여성사역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16	7. 3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김성태 교수 (오픈도어선교회)
17	8월	제 삼국 비전 트립	

■ 일 시: 23년 3월 20일 - 7월 3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비전트립, DMZ기도회 별도)

■ 장 소: 헤세드 교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2-33 / 2호선, 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앞)

■ 수강 신청: 3월 1일-17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에서
온라인 접수, 3월 20일 현장 접수

■ 등록비: 15만원 (목회자, 신학생,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문 의: 이정현 간사 (010-2618-4906)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